

三十七年己酉 今 (下略)
日道光元年 辛巳

◎發掘事業

- 1、慶北 慶州市廳 앞 道路의 下水溝 新築工事에서 새로운 古墳이 發見되어 五 月中旬頃 國立博物館에서 發掘整理하게 되었다.
- 2、京畿道 楊州郡 미금면 수석리의 石器時代 住居址가 發見되어 國立博物館 首席學藝官 金元龍氏가 中心이 되어 學術的 發掘을 하게 되었다.

◎文化財保存委員會 委員 現地踏查

文化財保存委員會 委員 全員과 專門委員은 四班으로 나누어 全國에 걸쳐 앞으로 指定한 文化財와 今年度 修理對象 文化財를 調查하기 위하여 五 月中旬부터 現地를 踏查하기로 되었다.

◎韓國大學博物館協會 發足

國內의 大學博物館이 서로 提携하여 人類考古學의 向上과 大學博物館事業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十七個大學 關係者가 모여 지난 五月五日 同協會가 發足하였다. 그 構成은 大學附屬博物館으로 하되 大學附屬歷史參考品室도 이에 準하게 되었으며 同協會의 事業으로는,

- 1、博物館의 管理運營에 關한 調查研究
- 2、探訪、蒐集、發掘
- 3、研究發表、講習、展示會의 開催
- 4、研究誌、著述物의 發行
- 5、海外學界와의 學問的 交流
- 6、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等이며 會長에는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長 沈亨求氏, 副會長에는 高麗大學校 博物館長 金廷鶴氏, 慶北大學校 博物館長 朴乙龍氏가 各各 當選되었고 幹事에는 在京 七個 大學博物館이 選出되었다.

◎美術資料 第一號 出刊

國立博物館에서 發刊하는 美術資料 第一號가 出版되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國立博物館所藏 漢代의 青銅帶鉤	金載元
遼寧西岔溝古墳群出土의 一短劍	金元龍
慶州皇吾里古墳發掘略報告	秦弘燮
高麗在銘青銅「飯子」의 新例	黃壽永
新羅時代欄干의 裝飾文樣	尹武炳
修德寺大雄殿의 壁畫	林泉
雜報(卑蘭寺重建上樑文의 發見)·考古美術一	歐羅巴展示韓國古美術品目錄

— 第二卷 第六號 通卷十一號 —

淨水寺法堂 上樑文

尹 武 炳

江華 摩尼山의 東쪽 中腹에 자리 잡고 있는 淨水寺 法堂은 高麗末期로부터 李朝初에 걸쳐 盛行한 柱心包집 系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側面三間의 맞배지붕으로 된 建物이지만 그 후 李朝中期에 重修를 보아 前面에 마루를 間退한 間이 달리게 되고 또 內部도 원래는 椽 등天井이었던 것이 그 밑에다가 周圍의 귀를 접은 우물天井을 附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規模도 (現在는 正面三間, 側面四間) 달라지고 外貌에 變化가 많이 생겼으나 建物의 원체가 되는 部分의 構造形式은 뚜렷이 區別되며 特別히 後面에 들어가서 처마 밑에 配置한 貢包의 細部를 보면 누구나 이 法堂이 李朝初期의 建立임을 곧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確實한 年代에 對하여서는 아무런 資料도 없었던 바지나 一九五七年 가을에 實施한 補修工事 當時 上樑道里에서 白紙에 墨書한 上樑文이 發見되어 요즘에 와서 그 寫眞一枚를 京畿道廳으로 부터 얻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그 全文을 들어서 簡單히 紹介해 두고자 한다.

康熙二十八年己巳三月日

淨水寺法堂上樑入文

積年達磨

初一重創永樂二十一年癸卯改重創戊寅六世至七十「一歲化主億能」大木圓孝熙

二重創天順二十年戊寅間造「成壬子歲至九十五年大木法」明淨水寺住持大禪師惠令「大祖師思光化主禪熙」

三重創嘉靖三十一年壬子四月「十三日改椽上樑至癸丑化主禪熙」大木岐能(以下九字不明)

四重創萬曆十四年丙戌
五重創康熙六年丁未閏四月「二十一日上樑緣化過手惠輝」副過手覺瓊助役元一供養主「戒俊愛男 別座學玲」化主尙淳「治匠慎丑生

六重創康熙二十八年己巳三月「初三庚午日自始破屋爲始」同月十七甲申日丙寅時入改「上樑 六重創大施主秩」江華府內崔氏逸香「宋之廉兩主

이 上樑文은 康熙二十八年(一六八九)에 여섯번째로 重創하였을 때의 것이지만 이 重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上樑文에서 흔히 重修와 같은 意味로 사용되어 있다. 여기서도 역시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데 結局이 淨水寺 法堂은 永樂二十一年(一四二三)에 重建된 以後 大小 五回到 걸쳐 修理되었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는 것이 된다. 이들 六重創에 이르기까지의 年代와 于支는 서로 符合되며 正確하게 記錄되어 있으나 二重創의 年代만은 天順二年戊寅(一四五八)이라야 하는 것을 잘못해서 二十年으로 誤記되어 있다. 永樂二十一年의 重建 當時의 上樑文이 아니지만 그 때 그때의 化主나 住持 또는 大木 以下の 이름들을 記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전의 上樑文에 依據하여 重修된 事實들은 그대로 正確하게 傳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造作한 것같은 句節은 거의 없다. 다만 初

一重創을 말한 줄기에서 「改重創戊寅六世至七十一歲」라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며 아마 二重創의 戊寅에 이르기까지가 住持의 代數로 六世가 되고 그 동안이 七十一年間이었다는 뜻인 것 같다. 그 年數를 따지고 보면 符合되지 않는다. 그러나 二重創에서 三重創인 嘉靖三十一年(一五五二)壬子까지를 九十五年이라 한 것은 正確하게 들어 맞는다.

이러한 問題 以外에 좀 알아 보기 어려운 말들을 추려서 蛇尾를 붙이면 二重創의 大祖는 大禪師의 잘못일 것이며 三重創에서 改椽上樑은 서까래를 갈고 道里까지도 갈아서 上樑하였다는 것, 五重創의 緣化는 佛事를 經營하는데 募緣勸化한다는 말, 그리고 過手의 邊字의 俗字로서 이 邊手는 邊首라고도 쓰고 또 片手라고도 흔히들 쓰는데 그 뜻은 工匠들의 頭目을 가리킨다. 助役은 文字 그대로이며 供養主는 절에서 밥을 짓는 중, 別座는 佛事가 있을 때 그 錢穀을 맡아 보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化主는 施主와 같은 意味로서도 使用하지만 四方으로 다니며 施主를 얻어 財物을 모아서 어떤 佛事를 成就케 한 僧侶를 가르켜 化主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또 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 것은 中間에 와서 前面의 退間과 內部의 우물天井을 덧붙인 時期에 關係사이지만 이 上樑文에는 전혀 그러한 點에 對하여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後世에 添加된 部分은 그 솜씨로 미루어 보아 壬辰 以後의 일로 짐작되므로 結局 五重創이나 六重創 때의 것으로 틀림없을 것이나 그 어느 쪽인지는 實地로 建物の 細部를 詳細히 檢討하기 전에는 갑자기 判斷을 내리기 어렵다.

楊州 水石里의 石物들

金 元 龍

京畿道 楊州郡 漢金面 水石里 石室部落 옆에 石物이 二, 三箇가 있는데 모두 保存해야 할 重要한 遺物들이라고 생각된다.

그 中 하나는 花崗岩製 龜趺이며 목이 바르고 담담하나 잔등에서 反轉하는 荷葉이 實感이 있다. 이 龜趺 前方에 片磨 岩製碑首가 떨어져 있는데 距離로 보아도 그렇고 部落사람들 말을 들어도 그렇고 이것이 元來 이 龜趺위에 세워 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碑首는 우리가 普通 보는 龍이 아니고 雙鹿이 새겨 있는 것이 珍貴하다. 寫眞에서 보다 싶이